

2016년 5월 12일

기도로 새 아침을 열었다. 내일은 13일, 내 팔순 날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 팔순을 두 달도 못 남겨놓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3월 3일 여느 날과 같이 연천 노인복지관 봉사를 하려고 9시가 채 못되어 남편은 집을 나서셨다.

다른 날은 남편이 차를 탈 때까지 배웅을 했는데, 이 날은 TV 를 마저 보느라고 배웅을 현관에서 "차 조심 하세요" 들어가 TV를 보고 9시에 나와보니 남편이 현관 밖 쇠돌에 쓰러져 계셨다.

나는 급히 119에 연락,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일산 백병원으로 모셨다. 자녀들이 달려왔고, 응급처료가 끝난 후 일반 병실에 입원. 수술 날을 7일로 잡았다.

정신도 맑으시고, 통증도 완화되니 같은 병실 환우와 이야기도 잘 하시고 "나는 7일에 고관절 수술을 하고 14일에 퇴원한다"면서 희망에 찬 이야기도 하셨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상태가 나빠지고, 식사는 밥에서 죽으로 변했고, 집에 한 번만 가고 싶다고 애원을 하는데 주렁주렁 매단 줄도 많고 해서 좀 낫고 가자고 달랬다.

그러던 중 14일 새벽, 의식을 잃으셨다고 연락이 와 자식들까지 모두 모였는데 차츰 의식을 회복하고 15일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드린 임종예배에서도 이 양반이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시는지 바로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도 나는 작은 소리로 남편과 자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 또 사경을 헤매는 환자인 남편은 혼자서 기도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 "나는 하늘나라 갈거야.나 하늘나라 좋아해" 라고 하셨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빨리 나오시려면 근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영양 주사와 수혈을 계속 해드렸다. 그러나 식사는 죽에서 연식을 코로 넣어드리고 이 양반은 커피, 우유가 자시고 싶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렇게 드시고 싶어하시던 것을 안 드린 것이 뼈저리게 후회가 된다.

3월 17일, 넘어진지 꼭 2주만에 소천하셨다.

우리 부부는 평소 아침 7시 30분이면 두 손 잡고 기도하는데,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으나,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들림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했다.

아쉬움은 많지만 (남편 83세, 나 80세.결혼생활 57년, 1녀 2남) 기도대로 응답하신 줄 믿는다.

19일에 교우들의 찬송 속에 교회 공원 묘원에 안장해드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이번 큰 일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일가 친척을 모시고 어버이날 겸 팔순 잔치 겸 5월 7일에 식사대접을 하고 작은 선물도 마련을 했고, 또 작년부터 준비했던 각색의 바늘

꽃이도 선물했다.

이렇게 남편 없는 팔순을 치렀다.

정작 내일 (13일)은 어느 놈이 올지 오늘 12일 자녀들의 권유로 연천 노인복지관에 나가 오전에는 땃돌 체조라는 것을 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가 오후 3시에 출발하므로 오후시간은 복지관 독서실에서 '태백산맥'(조정래)을 9권 째 읽었다.

약간 좌경향으로 흐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배경이 내가 경험했던 해방 전후의 혼란, 6.25 지리산 지역의 빨치산 활동. 정부군과 인민군의 치열한 전쟁 등 폭넓게 구사된 생활, 문화, 언어, 전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배경이 흥미롭다.

집에 도착하니 4시. 뜰에는 잔디보다 풀이 더 많고, 금년들어 앞 뒷뜰 철쭉,당신과 함께 심고 가꾼 꽃들이 유난히도 바다를 이루고, 어슬한 저녁 무렵 방에 들어오니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영정 앞에 애들이 가져다 놓은 카네이션 꽃바구니...

"여보. 당신이 그리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당신 없는 집이 이렇게 쓸쓸할 수가 없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가시기 전에 왜 그리도 급하게 서둘러 집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시고 거실도 나무로 새로 깔고, 도배 장판. 앞뜰도 돌 마루로 깔고 정원의 나무들도 그늘진다고 모두 손보셨죠? 그간 고마웠어요. 여보 고마워요. 나 혼자 자식들의 효도 받으며 이 고즈넉한 시골집에서 아침에 창문을 열면 뒷산에서 풍기는 향기, 뜰에 자라는 채소 등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아...!

당신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사시지요? 오늘밤엔 꿈에서 당신과 만나길 기도하며 잠자리에 듭니다."